



로지스틱스, 일본의 과제

본 원고는 지난 2011년 12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열린 「한·일 리터너블 파렛트 시스템 컨퍼런스」의 발표원고로 일본 와세다 대학교의 Teruo Takahashi 명예교수가 발표 하였습니다.

- 편집자 주 -

1. 진화하는 로지스틱스

- 물건(사람)의 흐름과 이를 지원하는 정보와 돈의 흐름을 로지스틱스라고 한다.
- 공장 내 로지스틱스, 작업장의 로지스틱스, 병원의 로지스틱스, 서플라이체인 로지스틱스 분야에서 로지스틱스가 최근 서플라이체인 로지스틱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.
- 변모하는 세상에서 아시아에 시선이 집중되고, 물건(사람), 정보, 돈이 국경을 초월하여 교착하는 시대가 되었다.

2.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

- 물건의 흐름이 피해 입은 생활, 산업을 지원했다.
- 정보의 흐름이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때, 필요한 장소로 움직였다.
- 돈의 흐름이 물건과 정보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지속시켰다.
 - 사람들은 로지스틱스가 생명 유지의 기본인 것을 확인했다

※재해대응

일반준비 : 복선화된 탄실한 인프라(정보 포함) 시설, 거점정비, 비축, 피난 훈련
 긴급대응 : 인명구조, 인프라 복구, 잔해 처리 약, 식품, 의류, 가솔린 공급 이동
 제조업 : 서플라이체인의 복선화, 소규모 분산 부품 공통화관련 활동의 정보공유화



3. 소셜로지스틱스

- 개인의 생활, 개별기업의 로지스틱스를 공공의 입장에서 물건, 사람, 정보, 돈의 흐름을 계획한다.
예) 유닛로드, 파렛트, 컨테이너, 차량 등의 표준화, 막힘없는, 국제적 물류시설 계획, 물류정책 가이드, 관세 등
→ S.I.에서는 사람의 흐름을 물건에 추가하여 생각한다. (관광, 재해피난, 의료 등)

4. 정보화시대의 진전과 정보와 물건의 흐름의 일체화

- 정보가 로지스틱스를 지탱한다.
- 자동인식의 기술

5. 글로벌화 대응

- 소셜 로지스틱스
- 글로벌 로지스틱스 평가
- 인재개발

6. 현장력과 경영의 정합

- 현장의 자율성과 톱의 전략과의 정합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

7. 공유의 철학 - 소유라는 욕망으로부터의 탈피

- 농경, 목축으로부터 시작된 소유라는 욕망 - 소유를 야기한 공죄
- 새로운 공유 대책 : 렌탈, 공동화/공동사용, 인재파견, 3PL

8. 그린 로지스틱스의 촉진

- LCA : 제품, 서비스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수법
- 탄소 발자국 :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배출된 온실효과 가스(오존, 메탄, CO2)의 양 표시
- 로지스틱스의 : 온난화/대기오염 방지, 자원유효활용(폐기물 회수, 이용), 생물 다양성에 공헌

9. 설계기술의 체계화, 연구

- 방법(생각과 순서) 확립
- 기법개발
- 로지스틱스 분야에서의 다양한 지식 정비, 삼위일체된 기술을 합칠 필요가 있다.